東亞日報

夕刊
六月廿一日(木)

編輯 兼 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金鐵中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比律賓獨立後엔
條約的中立保障
外國의併合을防禦할唯一方法
英紙海軍記者主張

【倫敦二十日發聯合】 [illegible] 比律賓의 [illegible] 獨立國家가 [illegible] 米國이 [illegible] 日本이 [illegible] 中立條約에 [illegible] 米國政府의 [illegible] 日本 [illegible]

[illegible] 中立이 [illegible] 條約에 [illegible] 成立不可能이라고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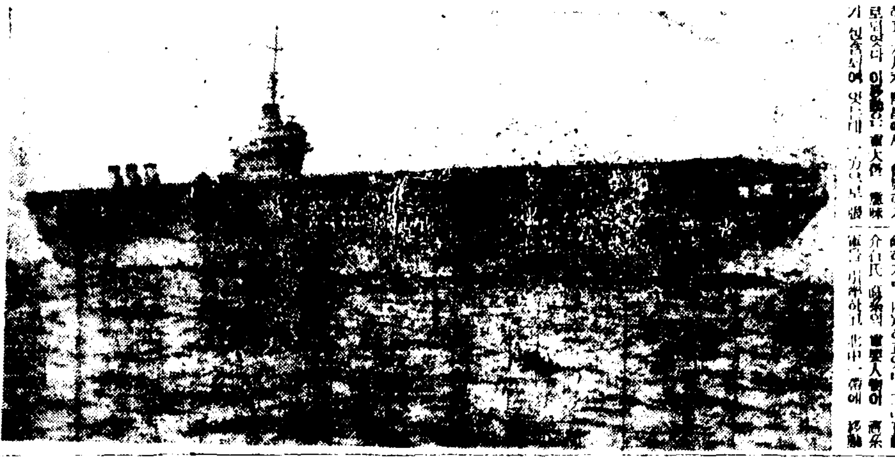
蘇聯通信의
誤報問題에
外省聲明發表

【東京電話】 지난五月廿二日 모스크바에서 太田大使와 蘇聯外務次官 스토모니아코프 氏와의 間에 行한 滿洲國汽船 北滿號事件에 關한 會談에 對하야 六月廿八日 모스크바 타스通信이 日本新聞은 誤報하엿다는 非難에 對하야 外務省 에서는 左와 如히 發表하엿다

外務省 情報部長은 太田大使와 스토모니아코프 氏와의 間에 行한 [illegible] 會談에 對하야 [illegible] 記者團에 發表 [illegible] 新聞은 그것을 [illegible] 報道하엿다 [illegible] 太田大使에게 傳하여 [illegible] 外人記者 [illegible] 英語로 [illegible] 日本語로써 [illegible] 타스通信에 原語와 같이 [illegible]

直系軍을移動
北中地盤을鞏固
蔣介石氏의對日工作

【上海二十一日發電通】 河北省主席 于學忠氏를 河南省主席으로 任命하고 張學良氏의 舊部下를 河北省에서 移動하기로 決定한 蔣介石氏는 [illegible] 六月末 南昌에서 [illegible] 重大한 意味 [illegible] 蔣介石氏 直系의 重要人物이 [illegible] 北中에서의 蔣介石氏地盤 [illegible] 그러하야 [illegible] 移動은 [illegible] 行할 것이다



問題의米國新航空母艦 【華盛頓發聯合】 寫眞은 「問題의 航空母艦」으로 米海軍이 자랑하는 世界中最新式의 航空母艦인 [illegible]

推移如何로는
日英共同抗議?
外務省、于氏에게警告

【東京電話】 山東沖에서 英國汽船 順天號가 海賊團에 襲擊되어 英人과 日本人이 行衛不明이 된 事件에 對하야 二十一日 外務省에 [illegible] 日本人의 生命財産에 關한 重大事件이므로 [illegible] 南京政府에 [illegible] 抗議하기까지 [illegible]

順天號事件에
英、强硬抗議
飛機로搜査에努力中

【北平二十日發聯合】 十八日 [illegible] 順天號 [illegible] 英國公使 [illegible] 事件에 關하야 [illegible] 南京政府와 [illegible] 航空母艦 [illegible] 二十日 午前 [illegible] 飛行機數臺를 날리어 [illegible] 搜査하엿다

乘客假裝하고
同類呼應行動?
順天號事件에對한觀測

【東京電話】 十七日 [illegible] 에 關하야 二十日 在芝罘山崎領事로부터 外務省에 到着한 報告에 依하면 [illegible]

【英國汽船順天號】 [illegible] 天津에서 芝罘에 向하야 [illegible] 日本人 [illegible] 名 船員二名 中國人 [illegible] 其他外國人 [illegible] 名이 乘船 [illegible]

國防의樞要機關인
軍事會議廢止
蘇聯中央委員會公布

【모스크바二十日發聯合】 蘇聯政府는 過去十年間 國防의 最高機關이엇든 赤軍革命軍事會議를 [illegible] 二十日 聯邦中央執行委員會의 名義로 公布하엿다

一、革命軍事會議를 廢止할 것
一、陸海軍人民委員會를 廢止하고 새로 聯邦國防人民委員部를 設置할 것
一、가마르니크 兩氏를 國防人民委員部次長에 任命할 것

英、米第二回의
豫備的會談
主로맥首相이發言

【倫敦二十日發聯合】 英米海軍豫備會談 第二回會合은 二十日午前十一時부터 [illegible] 英國首相官邸에서 [illegible] 맥도날드首相 [illegible] 데이비스 [illegible]

早大統領에
法博을授與
에일大學에서

【紐育二十日發聯合】 早大統領은 二十日 [illegible] 名譽法學博士의 學位를 [illegible]

幹部間暗鬪로
獨內閣動搖
파펜、괴벨스去益疎隔

【伯林二十日發】 가장信賴 [illegible] 依存하는 [illegible]

伊太利首相은
不遠獨逸行
形式上은答禮訪問

【羅馬廿日發】 [illegible] 히틀러首相의 伊太利訪問에 對한 答禮로서 [illegible] 九月 [illegible]

齋藤駐米大使
헐長官과會談

【華盛頓二十日發聯合】 齋藤駐米大使는 二十日 國務長官과 [illegible]

海軍豫備交涉
佛、參加受諾
來月初、피海相渡英

【巴里二十日發聯合】 佛國의 五大國海軍豫備會商 [illegible] 피에트리海相이 來月初 [illegible]

鈴木氏는尙早
宇垣氏는反對
軍部는消極的留任論

【東京電話】 [illegible]

米國聯合艦隊
八月太平洋에歸還
軍艦建造費四十萬弗支出도承認
스완슨海軍長官言明

【華盛頓二十日發聯合】 米國聯合艦隊는 지난十八日 [illegible] 太平洋岸에 向하야 復航의 途에 올랐는데 海軍長官 스완슨氏는 二十日 新聞記者團과의 會見에서 聯合艦隊 今後의 動靜에 對하야 [illegible] 八月까지에는 다시 太平洋根據地에 [illegible]

早大統領旅行前
重要法案에署名

【華盛頓二十日發】 早大統領은 [illegible]

一、[illegible]統制法案
二、赤字補塡法案
三、米國合衆國의 國際勞働會議參加의件

順天號人質
二名은釋放

【上海二十日發】 [illegible]

西田總領事
搜査要求에
韓氏努力回答

【濟南二十日發聯合】 [illegible]

日英豫備會談
議題等을討議
松平大使와맥首相間에

【倫敦二十日發聯合】 松平駐英大使는 二十日 外務省에 [illegible]

對中債權
組合總會
整理方法幹事一任

【東京電話】 [illegible]

日本鋼管重役會
利金處分案査定

【東京電話】 [illegible]

消息

▲金性洙氏 [illegible]

▲申錫雨氏 [illegible]

橫說竪說

▼日、英、米、佛、伊等 五個國 海軍軍縮에 關한 [illegible] 條約은 一九三六年에 [illegible]

○

○

皮膚 泌尿 花柳病
醫學博士 渡邊晋
京城黃金町入口 [illegible]
診察 [illegible]

矢野テント商會

갑싸고 질긴
우리의 옷감
대극성광목

質 當典 大塚本店

士金 石金 高價買入
株式會社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平壤府旭町二三
平壤出張所

포리도루-레코-드
七月新譜 (六月二十日發賣)
靑春을차저 沙工의설음 會社이물방아 遠浦歸帆 靑春日記 山遊 月下夢 개나리타령
(六月十五日既發賣) 朝鮮總督府學務局內 朝鮮敎育會撰定

武田發賣品
月經不順 月經寡少에
卵巢實質 호르몬劑 오오호르민 オオホルミン
本劑는內分泌學最近의研究에依하야、[illegible]卵巢實質에서抽出한「호르몬」製劑이올시다。
婦人의健康은卵巢機能에左右됨이니、此卵巢機能에故障이生起면心身에病的現象이오는것입니다。
「오오호르민」은女性의生理保續에가장重要한製劑이요 服用이容易하며、服用後의副作用이全然업습니다。
一、卵巢缺落症狀……頭痛、眩暈、不眠症、四肢·腰部冷感、記憶力減退、性慾減退等
一、卵巢機能障碍……月經不順、月經寡少、子宮發育不全症、乳汁分泌障碍等。
一、更年期疾患……血壓亢進、動脈硬化症
一、精神神經系疾患……神經衰弱、憂鬱症等
【價格】 [illegible]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各地知名藥店에서販賣함)
OOPHORMIN

啓蒙의 炬火들고 農村으로 가자

光明의 新朝鮮建設에 千六百健兒參加

今日午前中百餘名繼續參加

今年啓蒙은 十萬名을 豫定

계몽운동의 횃불을 들고 어두운 농촌으로 가자。 그리하야 문맹의 그들에게 광명을 주자! 이 우렁차고 힘찬 이운동은 벌서 전조선남녀학생 一천六백명(二十一일오전까지)을 참가시키고 계속하야 참가는하는중이다。 이참가대원들이 계몽시킬 예정수는 十만문맹을 퇴치할기세와 예상을 가지고잇다。

◇載寧明新校

李善女 載寧新花里
梁致俊 同 安岳大遠面當山里
金萬永 同 海州檜內面[illegible]
申萬均 同 沃川邑敎會
朴準燮 同 載寧高城里敎會
孔貞田 同 載寧
徐東元 同 松禾[illegible]
朱貫鉉 同 [illegible]池[illegible]敎會
裵[illegible]律 同 松禾郡[illegible]方面[illegible]山里

◇培材高普

李德洙 同 黃州
鄭善結 同 信川邑
吳貞[illegible] 同 載寧財泉里敎會
金基[illegible] 同 殷栗[illegible]
朴貞福 同 松禾德安里
金斗성 同 載寧
李[illegible]順 同 載寧
張眞善 同 信川
鄭俊來 培材高普 高陽郡[illegible]里
李大均 同 碧川郡大[illegible]洞

鄭善圭 同 全北金堤
朴殷紹 同 江華郡文山里
李正相 同 高陽郡孔德里
李應烈 同 牙山郡白岩里
尹政炳 同 義城郡上仁面
趙[illegible]烈 同 順天邑長泉里
金光宇 同 甲山郡北部里
金龜東 同 忠州郡可興里
李範來 同 [illegible]子街下場里
張啟九 同 延白郡鳳南里
高亨善 同 興南邑九龍里
鄭根模 同 靈光郡[illegible]里
鄭周泳 同 寧邊郡花川洞
李敎雨 同 扶餘郡[illegible]里
李得宰 同 高陽郡土堂里
張準基 同 龍岡郡三和面
金貞賢 同 金化郡沙谷里
林炳究 同 天安郡長山里
金永壽 同 忠北堤川
崔益三 同 高陽郡高陽里
金敦洙 同 水原郡野牧里
金鍾七 同 寧邊郡龍興洞
李啓錫 同 京城府積善洞
鄭泰義 同 天安郡大井里
金能泰 同 務安郡大[illegible]里
溫東殷 同 金堤郡山東邑
柳曾舒 同 春川郡頓十里
裵元鑒 同 全州郡洛平里
申淳錫 同 高陽郡[illegible]里
文頤九 同 富川郡[illegible]

李石汝 同 扶安郡邑內
金鳳宜 同 伊川郡邑內
孫基德 同 振威郡[illegible]井里
同 內基里
劉正雄 同 光州
林洪植 同 忠州邑丹月里
金鍾[illegible] 同 扶餘郡[illegible]里
申鉉禹 同 唐津郡[illegible]里
郭敎哲 同 茂山邑敎會內
林雨慶 同 慶州郡新沙里
趙壽衛 同 利川郡立方里
元仁錫 同 京城妙洞敎會
徐光[illegible] 同 [illegible]島郡大文里
張錫英 同 洪川郡[illegible]谷里
成우殷 同 [illegible]寧郡[illegible]里
都在洪 同 星州郡京山洞
申東昱 同 尙州邑西町
金恩得 同 高陽郡杏堂里

任興需 同 大田邑大東町
孫得明 同 平山郡[illegible]浦里
宋[illegible]天 同 楊平郡東[illegible]川
朴能遠 同 始興郡木內里
李宗敏 同 海州郡江亭洞
安秉柱 同 鐵原邑內敎會
尹命[illegible] 同 三水郡上洞口
曹계燦 同 金泉郡[illegible]
南[illegible]熙 同 益山郡[illegible]里
河源植 同 鐵原郡月井里
李殷[illegible] 同 京城府[illegible]洞
鄭彥基 同 金泉[illegible]田敎會
金武[illegible] 同 高陽郡[illegible]里
崔英圭 同 海南郡法谷里
申東吉 同 全州邑高砂町
鄭達永 同 陰城郡邑內里
金正烈 同 鐵原郡下[illegible]里
金鍾元 同 延白郡南[illegible]里

河涉來 同 靈岩郡明[illegible]里
蘇明[illegible] 同 益山郡[illegible]里
閔[illegible]基 同 寧越邑內敎會
邊斗甲 同 安東郡[illegible]洞
朴金洙 同 仁川府內里
高廷均 同 高陽東[illegible]上里
金庚熙 同 京城府大[illegible]通
崔甲哲 同 務安郡大[illegible]里
朴錫[illegible] 同 [illegible]陽郡[illegible]里
金弘[illegible] 同 安東郡[illegible]洞
崔恒[illegible] 同 高陽郡[illegible]井里
林鳳[illegible] 同 延白郡大[illegible]里
白台[illegible] 同 靑松郡月[illegible]洞
崔[illegible]羽 同 務安郡大[illegible]里
金正[illegible] 同 瑞山郡[illegible]里
任善[illegible] 同 瑞興郡[illegible]里

◇釜山二商

李鍾律 釜山二商

別動隊

李鳳善 梁山郡內[illegible]里
金斗培 京畿[illegible]沙里院
申曉淑 長湍郡邑內[illegible]敎會
閔소月 公州郡正安面[illegible]里
鄭谷隱 信川郡[illegible]里
裵貴植 海州郡西[illegible]面[illegible]里 和龍縣[illegible]新社八道河子
石萬金 平原郡永柔面[illegible]里
申英[illegible] 咸平郡[illegible]面[illegible]里
李承[illegible] 鐵原郡於雲面月井里
金處五 釜山郡[illegible]面[illegible]
李能熙 [illegible]州郡[illegible]面[illegible]山里
曹東[illegible] 扶安郡東津面[illegible]北里
鄭元[illegible] 定州郡[illegible]浦面新[illegible]洞
崔榮 富川郡[illegible]內面[illegible]里

卅町步以上所有地主 朝鮮人四千廿戶

二千町步所有地主는十一戶뿐

京畿、黃海道에 最多

작년중 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안지주의 통계를 들어보면 三十정보이상을 소유한 지주가 전조선을 통하야 四천八백二十三호라한다。

이것을 구별하야 본다하면 조선사람은 四천二十四호로 그소유면적이 三十四만 九백七十정보이오 일본사람은 七백九十九호로서 그소유면지이 二十一만 六천七백四十정보라한다。

이것을 또다시 一천정보이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구분하면 조선사람은 十一호에 불과하고 일본사람은 二十七호에 달한다고한다。

소재 도별로보면 조선 사람은 경기도(京畿道)에 六백四十二호가 최고이오 그다음은 황해도 黃海道에 五백八十八호이오 일본사람은 전남(全南)에 一백八十九호、전북(全北)에 一백三十四호、경남(慶南)에 一백十六호의 순서이다。

이것으로 본다하면 조선사람은 중부이북의 비교적 농업이 한산한 곳에많고 일본사람은 가장[illegible]하야 조선이 남향의 [illegible]남조선에 많이 잇는것이 판명되며 일본사람은 二十七호이나 대부분이 거의전부가 순사에 치[illegible]

그리고 一천정보이상 소유자로 지주는 보다 [illegible]이 집합한것이다

元山拳銃事件 共犯五名檢擧

取調따라黑幕暴露

지난六일에 원산에서 발생한순 형사대가 습격하야 二十[illegible]명부 [illegible]의 권총사건이잇은후 경성에서 (平北)에서 공범자[illegible]명과 시내에 잠입하엿다가 시내에서 경찰서원에게 잡혀중인 역시공범자 三명의 도 체포되어 엄다[illegible]취조를 받고 원산 서로 송치하엿다는것은 기보와같거니와 시내[illegible]서에서는 계속하야 취조를 [illegible]하게속중인데 취소에따라서는 사 그들의배후에숨은 공범자가 잇음 을암시하고 [illegible]에 [illegible]이외의 방면에 전개될 시하야 각지에수배하는한편 [illegible]지도 모른다고한다。

海城丸坐礁

(上)彌生町아이잃은집 (下)怪火난집

獵奇的嬰兒盜難事件

연[illegible]화하[illegible]이 잇어[illegible]가 안대수[illegible]장으로 화하엿는데 그이웃에사는 산一번지의 一호의五十九호 바이와(朴淑化)(二[illegible])의처가 二十一일전에 생산하사내아이(鳳瑞)를 누여놓고 [illegible]은 [illegible]나갓다가 돌아[illegible]시[illegible]경에 집에[illegible]아온 즉 [illegible]대기에 싸놓앗든 어린애가 간곳이 없어서 사건이다。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이사건을 [illegible]에 붙이고 어린애 어머니김씨(金氏)(二[illegible])를 경찰서에 유치시키후 맹렬한활동을 개시하엿는데 이범행은 문둥병환자들 써

[illegible]이 전기시경 성시내에서 [illegible]생되엿다 [illegible]十九일오후 [illegible]에 미생정(彌生町)산九번지의四十五호오복길(吳福吉)(二[illegible])의 집에서 [illegible]

隣家에 放火騷動등에

癩病者들이 小兒盜去?

共犯者多數로 리레式의犯跡

昨夜、彌生町에 怪事件

計劃的犯行

[illegible]

【이바전보】 지난十九일 잔하야 一천톤급의 웅기(雄基)로 향하던 문사급 소[illegible]한 대판상선「지야一마一」의 해성환(海城丸)一천五백十八톤은 二十一일 오전六시경 경북 여해면(迎日灣)에서 좌초되엿다는 급보신호(S O S)를 접한 해원환(海元丸)이 현장으로 급행하엿다。

처음社會主事 경성부사회과에 二十일부터 [illegible]하는사도공이(三[illegible])二十五번경성부사회 주사(主事)로임명되엿는데 이는 조대의경성부사회주사라한다。

女子師範敎育擴張

女兒入學增率圖謀

男五十女一名入學의不均衡은

家庭社會悲劇의原因

學務會議二日

전조선 학무과장회의의 제二일인 二十一일에도 정각인 오전九시부터 도변학무국장주재로 회의가 열리엇다。

이날의 주요한 문의안건은 여자(女子)교육의 보편화에 관한 것이엇다。

그중에서 남녀별로 본다하면 남자 입학자는 十만四천十四명이오 여자는 一만九천六백 四十六명으로 남자四인에 여자一명인 비율을 표시하게되엇다。

이것은 공립보통학교에 관한것뿐이오 가족사회에 [illegible]교를 통하면 남학생 五十명에 여학생 一명의 표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까닭에 [illegible]여러가지 계획이 잇엇으나 하는 여러가지 [illegible] 마련하지 아니하면 [illegible] 다하지라도 남녀가 [illegible]

[illegible]이데 이에대하야 각도학무과장들은 이구동이 백조하야 이앞으로의 조선사회의 문제는 남녀가 다갈이 교육을 받지아니하면 길각이 가전의 불평이 중대하야 이것이 큰 사회에 파여되는것이다。

현재의 전조선 공립보통학교의 입학상황을 본다하면 금년四월의 현재가 지원자 志願者 총수 三十四만六천一백五十八명중 입학자(入學者 총수는 十二만二천六백 六十명으로 지원자三명에 대하야 입학자 一인의 비율을 표시하고 잇다。

그러나 이곳에서 [illegible] 려은문제는 [illegible] 일반[illegible]교에 [illegible] 되지못한 조선여성에 미치어 [illegible] 그까닭에 이번 학무과장회의에서는 위선 여자의 사범교육을 확장하야 여자교원의 양성을 증가시키고 여학생의 입학을 증가시키자는 것이다。

[illegible] 시에 여자의 입학을 [illegible] 기위하야 남자의 [illegible] 교육[illegible] 아니하여서는 [illegible] 아니할가 [illegible]된다고 한다。

갑거니와 화재가일어난 지붕의한 반이 [illegible]하는[illegible]으로나 지붕인 대[illegible]이 말에잇으나 시간이 아이 나온수[illegible]이 반도[illegible] 에 지어버어 하기는 [illegible]다고 한다。

[illegible]지붕은 [illegible] 방화하기에 지 [illegible] 정하여 간범인의 소행이 [illegible]

꼭 三七日날

連想되는 慘害?

◇…물고러 갓다 돌아오니 아이는없고포대기뿐

피해자 박영화의 집은 방화된 오부[illegible]의 집에서 [illegible] 넷재집인데 그집에는 피해자외에 한가구가 사는집으로 범행당일 장[illegible]에는 그집에 [illegible] 대사[illegible] 차남 [illegible] 장남 [illegible]씨가 잇엇[illegible] 남편박영화는 [illegible]

[illegible] 피해자의 [illegible]

또[illegible] 방화당시에[illegible]이야[illegible] 사람도 [illegible] 자[illegible] 것으로보아 이것은 계획[illegible] 영하여 [illegible] 해내것이 [illegible] 박영화장소에는 [illegible] 에어머니 [illegible] 이[illegible]하다고한다。

警察部搜查本部

極秘裡活動

癩病者의處所를嚴査

소[illegible] 용산서에서는 이사건이 [illegible] 경찰부로 향하엿다 [illegible]

操觚界의先進

閔牛步長逝

◇…文壇에도 多大한 貢獻

三十九歲를 一期로

(사진은민씨)

조선조고계의 선진이오 조선문단의 중진인 우보(牛步) 민태원(閔泰瑗)씨는 향년三十九세를 일기로 二十一일오후七시 부내궁정동(宮井洞)十五번지 자택에서 이세상을 떠낫다。

씨는 불행히도 三년전부터 병마에 [illegible] 원래가 [illegible]의 사람이라 생활이 가난하야 [illegible] 어느 한[illegible] 못하고 [illegible]

씨는 충남서산(瑞山) 출생으로 ▲大正四年京城私立[illegible]卒業▲大正十二年東京早稻田大學卒業▲大正十二年東京日報社[illegible]局社會部長就任▲大正十三年朝鮮日報[illegible]局長就任▲昭和三年中央日報[illegible]就任

소설의「새생명」의 원고一 지난 十九일부터 四一七회를 최후의 집필로 [illegible]

씨가 조선문단에 남겨두고간 작품은 [illegible] 서유기(西遊記) 등의 번역외에 씨가 [illegible] 창작 ▲第二의[illegible]▲五色의[illegible]▲天[illegible]▲새生命

天氣豫報

日本方面은 이미 梅雨季節에 들어서 [illegible] 小低氣壓은 南西諸島及 東北地方에 [illegible]出하고잇다。 半島의 高氣壓은 圈內에잇고 [illegible]方面은 氣壓이 얇다。 全朝鮮은 大概 天氣가 좋으나 東岸과 木浦에는 霧가 發生하엿다。

明日도 大體로 日氣는 좋다。

晴 一時曇

昨廿一日氣溫 最高三十度七 最低十八度二

타이리쿠鉛筆

市街地令과

그미치는影響 ㊀

都市問題의擡頭와

建築住宅交通等制限

市街施設統制

「시행기일은 가까운장에 대하야 조선총독이 정한다」는 부측(附則)을 조선으로하야 조선시가지계획령이 十八일 제령제十八호로 공포되엇다。

전문九十조를 五장에 분하야 시가지계획에관한

규정을 十四개조문으로 ◇…제二장 총시

◇…진반직…

◇…잉구적…

◇…필인지…

◇…공사만…

◇…건축물…

計劃令의沿革

일본의 도시계획법이 기성도시(旣成都市)의 개량에만 목표를두어 이외에 [illegible] 반하야 조선시가지계획령은 기성시가의 확장 [illegible] 개량은 물론 새시가지 창작에 [illegible]

[illegible]

차질엔 엥구루가 절일이오

기침 담천식엔 잇치새-가 절일이오

부족증 폐병 늑막염엔 나오삐-가 절일이오

체증과 속병엔 겡오-가 절일이오

發賣元 神崎神聖堂

藥品直輸入株式會社

京城府大門町[illegible]

洛江被害再調完了 補償金支出도在邇

보리등거로延命하는被害民들

問題는補償의程度!

【부산】 김해평야의 배자피해는 국고에서 보상하기로 확정되어 지난十五일경부터 경남도청원이 현장에 출장하야 세밀한 피해정을 재조사하다음에 보상금을 지불하기로되엇다함은 기보한바 인데 도청원이 그간 [illegible] 조사한결과 二十일에 겨우재조사가 끗나엇으므로 다시 조사한수자를 통계하야 총독부에 보고하야 승인을 엇어가지고 보상액을 결정하엿으나 아직얼마를 보상한다는 [illegible]을하지아니하므로 지화한수자는 알수 없으나 지난번 홍수에 피해를당한지구에는 평상시의 수재로 피해를당한지점은 보상은 하지않고 지방한구제책을 강구하기로 하다는데 전시의로 보상지출에는 [illegible] 十四五만에 불과하리라 한다。 현금을 지출하기까지에 시일이 없어 소개되는 피해민에게는 그 곳에장으로하여금 위선 식량을대부하게하야 절박한처지를 면하게하고 이달말경에는 一제히보상금을 지출하게된다고 한다。

피해당한 김해평야의 농민중에는 보리수확에 잇어서 [illegible] 보리이삭을 솟두리채 찌어가지고 보리등게죽을 작만하야 죽략하다는 참담한생활을 연명하고잇어하는바 보상금이 지출되기를 고대하고 잇다 한다。

癩患者가濁酒密造 酒店에密賣타綻露

맘대로못들지못할걸 무기로

馬山署에서現品押收

【마산】 북마산역전(北馬山驛前) 차정봉(車貞鳳)(三八)은 세상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나병환자(癩病患者)로 써은 다리와 헐은전신을 무기로 수년전부터 탁주밀조를하야 부근판매업자들에게 밀매를하여오든바 당국에서도 취체하고저하나 한무답[illegible]이므로 그대로 두엇더니 요지음에는 공공연하게 대규모로 밀조를하므로 지난十八일 원정(元町)파출소에서 서원수명이 달려들어 대창(竹槍)두개와 밀주六시五두五승과 기타 각지설품을 압수하야 화물자동차로 입송하엿다 한다。

海州高普生等 控訴公判開廷

【평양】 해주고보생과, 해주에 원지유숙 동경 유학생등 중심으로 보조사된 비밀결사 반제동맹 재건 조사 세노조 재건위원회 해주독서회등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소공판은 十九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시본(矢本) 재판장주심, 횡전(橫田)검사 입회로 개정하엿다 피고 五인중 이영서(李榮瑞)(二七) 박성춘(朴成春)(二三)二명은 공소를취하하엿으므로 남어지 三명만사실을 심리하엿는데 이회사는 一심판결대로 다음과 같이 구형 하엿다。 판결은 二十六일에 언도 하리라 한다。

▲崔鳳植懲役一年六個月 ▲梁元甲、韓龍淑各懲役一年

嬰兒殺害? 少野引致取調

【신의주】 초산군 초산면 성동동(楚山郡楚山面城東洞)二二三이방(李龍方)(二[illegible])의처 조봉화(趙鳳花)(二七)는 남편이 소화六년四월강도죄로 징역五년의 판결을받고 서대문형무소에 복역중 [illegible]자와 관계를 맺어 소화八년 九월에 인사하엿다가 남편이 출옥하는데 四월二十三일[illegible](流産)하고 이틀후 동평면신사(八幡神社)뒤뜰에 미상하엿섯는 사실이 本서경찰서에 탐문되엇으므로 동서에서는 낙태 또는 영아살해의 혐의로 조사취조하는 일방 사체를 해부에 붙이엇다 한다。

安東青年會主催 朝滿雄辯會

【안동현】 안동현(安東縣)조선인청년회 에서는 오는八월一일부터 三일 조만청년남녀 웅변대회(朝滿聯合男女雄辯大會)를 개최하는데 중앙, 조선, 만몽四사지국후원하에 아래와같이 개최키로 되엇다한다

▲場所는安東縣滿鐵公會堂

▲時日은八月一日、二日、三日下午八時

▲申請期日은七月廿五日（但原稿添付）

▲申請場所는安東縣市場通青年會本部

▲賞品 一等純金메달 二等毛布 三等銀컵 四等折帖 五等美術時計

大田聖潔教會新築落成 【대전】 대전성결교회(大田聖潔教會)는 대전의발전을따러 교당이 협착하야 곤난이 많엇든바 금번六천五백원 공비를 드려 [illegible]여명수용할만한 대전으로 당당한 교당을 신축하고 지난十七일 각방면인사를 초대하야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엿다한다。（사진은 신축한 전대성결교회）

昌城獵銃殺人事件 三判事現場臨檢

싸움한사람 내여달란다 하여

鑛主父子가銃殺한事件

【신의주】 본적 산구현 구하군 상근촌대자근립(山口縣 歌河郡桑根村大字根笠) 현주 창성군 청산면하부동(昌城郡 靑山面下部洞) 천본학태(川本鶴太) 一四六과업 천본미의(川本美義)(二三)에 관한 살인사건은 죄의 관계상 동발생상황이 극히 중요하므로 신의주 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과 판사二명)에서는 판사三명이 함께 현장조사를 하기로결정하야 불원창성에 출장하리라고 한다。 동사건의 내용인즉 금춘三월二十七일 오후三시경 창성군청산면하부동 이춘경(李春京)의 처남의 사건의 피해자 이양규(李陽圭)의 처 정홍자(鄭弘子)(二一)가 거리에서 마다툼을 하는것을 마침 지내가든 천본의 금광덕대 강형종(姜亨鍾)이 보고 「여자들이 거리에서 싸움을 왜하느냐」고 꾸지람한데서 다시 정홍자와 강형종이 논쟁을하다가 [illegible] 산양나오든 천본미의에게 고발하어 천본의 집에 가잇엇는데 처로부터 이말을 들은 이양규는 천본의집에 가서 어강으나 천본미의의 공탄(空彈)을 내여달라고 두번이나 찾어가 발사에 집을내어 틀어갓다가 다시 밤九시경 이양규는 천본의 집 문을 두들기며 강을 내어달라고 성화하며 천본학태가 틈으로 이의 머리를 나타하야 중상을 입히엇섯다고 한다。 이는 이에더욱 격분하야 남편을 보고 천본미의는 엽총에 실탄을재어 이의 다리를 쏘아 이는 다량출혈로 동일밤十二시에 사망하엿다는 것이다。

今番大交通事故로 電車의性能綻露

연대도모를 옛차를 쓴까닭에

平壤府民非難聲漸高

【평양】 이번평양부영전차의충돌사건은 근래에없든 참사로一반부민으로부터 교통기관(交通機關)에 전철하는상태로서 더구나 문제의 사고전차가 이미그수명이 다된것이고 시대에쓸어진것으로서 이번사고의 간접원인도 거기잇지않을까하는점에서 더욱그러하다。 문제의 사고전차는 대정十三년경도(京都)시영전차를 불하받은것으로 그제조년대는 자세하야지지 못하나 명치(明治)년대의 것임은 틀림없다。 이것이 영리만을 목적으로한회사경영의 전차라면 차라리용혹무피지만은 지어도 부민의전차라는 부영에잇어서 그동안 적지않은이익이잇엇음에 불구하고 이를다른재원(財源)으로삼기에 급급하야 새차구입의 원요를 기치못한것은 부민의 기대에어그러지는 일이라아니 할수없다。 이것이 사고없엇스면 모름이라도 이번사고까지 발생케되매 부민간에부당국의 지나친이책과 무성의를타매하는소리가높다。

性能不足의許多한實證

나사못이 모두 빠저버리고

停車도任意로안돼

충돌사고의 원인에 대하야는 기술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철저 조사치 않으면 국외의 사람으로 서는 알기어렵다 하더라도 이사고의 원인을 곧 운전수의 책임이라 든가 혹은 낡은기계에기인함이라 는 속단은 나릴수없으되 문제의 사고전차가 명치시대에 제조된것 으로 밝은 관계상

一、사고의 직접원인이됨 뿌레기의 나사못(釘)이 빠진것도 그 까닭 아닐까

二、오래된 기계이므로 급정거(急停車)에 잘 말을 듣지않을 정도로 기계가 낡지 않앗을가

三、차체(車體)가 옛날식이라 승강대 출입문이 개천식(開閉式)이라는 근래 전차에 볼수없는 불편한것으로 이번에도 앞섯든 十六호전차 운전수가 승객에게 밀려서전차밖그로나간다음저절로문이 닷처서 다시 운전수가 타지못하게 된것이 사고를 크게맨든 원인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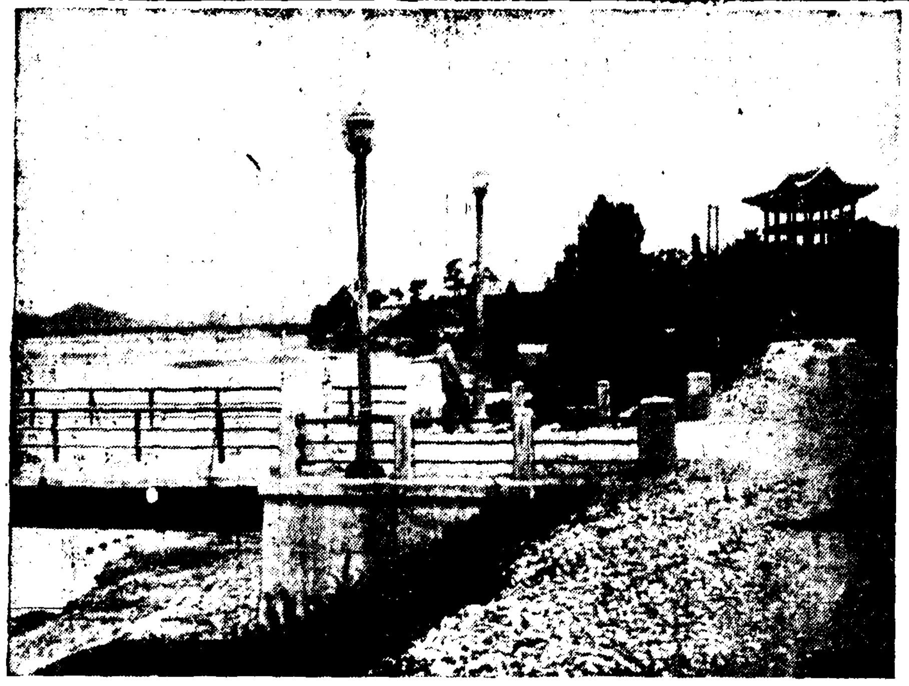
이라는 몃가지 점에잇어서는 오랜전차인 탓이엇는듯 부민의 불안은 오히려 금후에도 해소(解消)될 길이없다。

嚴重한取締 警察部嚴命

이번사고 뒤끝에 도경찰부에서는 그렇지않아도근래 빈번한전차사고를머리를 알릴중이라 조보안과장이 직접현장을 검사하엿는데금후의 사고방지에대하야 엄중한취체방침을 세우게 되엇다。

이번사고는 소화 대동(大同)착서의 상세한보고를기다려 중요연구한후 선후조처를 검정지우리이며 과하 평양、대동 두 경찰서에대하야

근래 전차사고가 너무빈번함에 불구하고 승무원의처분은 지나치게 경미하엿는가잇고 승무원의준법무속하지도 방칭하엿스므로 금후는 파세방면과 연락하야 만일 억사고가 다시없도록 취체에만전을 기하라는 엄중한통첩을발하기로되엇다한다。



避暑客 기다리는 바다와 亭子 [illegible]의 一景

畜牛生飼로 五萬圓利得

노력도절약되어 의익막대

坡州郡에서奬勵結果

【문산】 파주(坡州)군내의 축우(畜牛)는 四천 八백九十八두로 一년간의 사료꺼리는 연료의 소비고로 수백만과에 달하고 잇으므로 시탄과 노력을 절약 하기저 수년전부터 축우사료를 검조로생사한바 도리어 발육과 건강이 더욱양호하므로전군내에실시하야 一년긴 시탄절약이 四만八천九백八十원에 달하며 수다한 노력의 집약을 확진한다면 막대하리라 한다。

宜寧署猛活動開始 十餘處家屋을搜索

청년三명을 검거하고 취조중

某種檄文事件關係?

【의령】 경남의령서(宜寧署)에서는 十七일오전부터 十여곳의가택을 수색하고 박봉수(朴鳳守)여정식(余正直) 김상률(金相律)三명을 검거 취조중이나 사건내용은 아직자세히 알수없으며 박봉수여정식양인은 모종격문사건 입건하다하고 김상률만은 검거내용은비밀에 부치므로 알수없다한다。

陜川署檢擧의 三青年釋放

【합천】 경남합천경찰서고등계(陜川署高等係)에서는 지난五월 二十일 거창국천(居昌菊川)예심판사출장시에 아연긴장미을띠고 합천에잇는 四、五청년의 가택을 수색하는편이상인(李尙仁)(二二) 이종기(李宗基)(二一) 이순덕(李順德)(二一)등 三명을 검속유치한후 비밀결사(秘社)나조직한 혐의로 엄중취조한결과 범소득이없이 엄중계한후 검거한지 二十一일만인 지난十九일에야 겨우석방되엇다한다。

宣川明信校 同情音樂會

교사 증축비용에 쓰기爲해

知名樂士多數出演

【선천】 선천명신학교(宣川明信學校)교사증축동정음악회(校舍增築同情音樂會)를 본사선천지국후원으로 二十三일 오후八시반 신성학교 강당(信聖學校講堂)에서 개최하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평양성악계의 명성 이화하원의 피아니스트 조선의 명양소가들 망라한 이름잇는 아사광을 맞게 되어 지금부터 인기백퍼센트이라고하는데 동교의 증축을 하는의미에서 지방인사들의 다수참석을 바란다고 한다。

高麗病院强盜는 院長親友로判明

시계팔은것이 발단이되어

釜山署에서逮捕해

【부산】 부산부 초량정(草梁町)고려병원(高麗病院)에 지난번에 강도가침입하야 현금과 귀금속등을 강탈도주하엿다함은 기보한바이어니와 부산서에서는 이래 그사건의 범인을잡고저 백방으로활동중 대구 어떤 전당포에서 강탈당한 금시계를 사다는 소식을 받고 복정(福井)형사부장이 대구에 급행하야 금시계를 압수하고 전당포주인을 부산으로 다리고와서 그사건의 범인이라고 지목되는 양산(梁山)출생의 권재길(權在吉)(三一)을 초량정 김창래씨집에서 체포하야 대면 시켜본과 권재길이가 대구에가서 금시계를 판사람이 확실하다고하므로 틀림없이 그사건의 진범으로 판명되엇다。

권재길은 부내에잇는 도의원모씨의 조카되는 사람으로 양산에 본집을두고 부산에와서 전기한김창래씨집에서 아무것도 하는것없는중 도처마진 고려병원에도 자주출입하야 마작도 여러번함이잇어 있고 그주인과 여간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하며 도적맞든 저녁에도 같이놀고 그이야에도 그집에와서 강도마진위문까지하고 간사람으로 그사람이 그같이 강도질을하게된것은 천만의외라고 모두 놀라고한다。

婦人刺繡講習 浦項支局主催

【포항】 본사 포항(浦項)지국에서는 부인수예(手藝)보급을 하야 사계의권위 경성조선수보급회(京城朝鮮刺繡普及會) 강사 김문규(金文圭) 선생을 초빙하야 오는二十一일부터 二十八일까지 대흥유치원(大興幼稚園)에서 부인자수강습회를 개최하기로되엇다는데 포항에서 처음인만큼 대성황을 예기한다고한다

北青市民運動

大盛況裏終了

【북청】 함남 북청(北青)상공협회 북청상무사 주최와 본보북청지국 후원하에서 개최된 북청시민대운동회는 예정과같이 지난十六일 오전十시 동단의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어 선수 입장식이 잇은후 개회되엇는데 연三일간우중에도 불구하고 성황을 일우엇으며 특히 자전거경기는 멀리 일본대판(大阪) 경성(京城) 진남포(鎭南浦) 신의주(新義州)등지에서 모여들어 이채를 나타내엇다 한다。

▲마라손

一等 金炳璞 二等李直淳以下畧

▲自轉車一號

一等 金鳳祿 新義州

二等 玉眞士作 日本大阪

以下畧

鹿子紋講習會

【진영】 경남 진영(進永) 대산(大山) 양면에서는 농촌 어린 처녀들을 위하야 가정부업에 큰도음이될 녹자교(鹿子絞) 강습회를 주최하야 각각 강습생 백여명식 모집하야 지난十八일부터 각기 면사무소회의실에서 전문기사를초빙하야 一주일간씩 강습회를 개최한다한다

會合

◎扶安郡教育部會 去十六日公普校에서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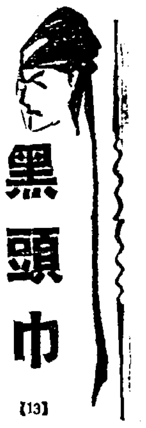
消息

◎李國源氏（官理會牧師）新任人事

◎李用濟氏（檜山金組書記）陰城金組新任人事次 本報水同支局來訪

◎張炳斗氏（忠浦公普校訓導）藤井公普校轉勤人事次本報忠浦分局來訪

來本月十九日本報南川支局來訪



黑頭巾

尹白南作

李青田畵

【13】

一、追躡 三

고개에서 도적을 만나오든때에 춘상의 머리人속에 번개같이 떠올르는 생각하나가 잇엇다。

그것은

「여기서 우리의 나으리는 틀어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엇다。 춘상이는 무식한 사람이나마치 미신에고혹한사람의 하나이엇다。

서울서 길을 떠나기전에 안주 [illegible]

봉변 이런말은 하고 재처물이니까 최병인은 머은길을 끊지근하고 나서

「그 부인이 패에나오는대로 말을 허지않엇으니까 그러치 실상 아주 좋지못하든걸」

「글세 그러니 가협겟없이 말해보구려 나한테야 말을못할게잇소」

「그야 그렇지오 그날은 돈받고 묻기싫은 소리 할수가 없엇단말이지」

하고 엄지손까락으로 손까락 마디마디를 짚어 천간지지(天干地支)를 따저보기도하고 입속으로 무엇을 한동안 웅얼대더니 마는

「잘못하면……허어 참 안됏어」

하고는 더 가르키어주지 않엇다。

이때부터 춘상의가슴은 몹실하엿엇다。 최병인이 말을 또렷이 하지 못하고 낑낑 매는것을 보면 여간 불길한일이 아니려니 하야 길을 떠난후에 입人상 조마조마하엿더니 필경 새재에서 도적을 만나고 말엇다。

「아뿔사 인제는 아마 면하지 못하나보다」

하는 생각이 그순간에 머리에 떠올랏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혹시 도적을 물리처 버릴수가 잇을가 하는 요행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적의 눈을 기어 도망할 결심을 하엿엇다。

자기하나가 힘을 다 한다고 상전의 운수가 바로잡힐가 싶지 않엇다。 기왕 상전은 상전의 숙명이 잇을것이니 자기하나만이라도 피신을 하엿다가 다시 기회를 엇어 상전의 원수를 갚어 드리리라 이렇게 생각한 춘상이는 두어사래 도시하고 싸우다가 마침 자기 길에서 싸우고잇던 상주장정의하나가 도시의 칼에 맞어 거꾸러지는 틈을타서 남쪽어지 꼴짜구니로 나리굴럿다。

그 낭떠러지는 꽤 깊기도 하려니와 첫재 캄캄하야 어이된것을 헤아릴수없는지라 정도좀은 머어진 춘상의뒤를 쫓으라고도 하지않고 앞어보라고도 하지않엇다。

생사를 운수에 맡기고 꼴짜구니로 떨어진 춘상이는 하늘의도움이엇든지 몸에 하나 상처도 받지않고 눈이 아즉 남어잇는 꼴짜구니 밑으로 굴러나려 그길로 그 꼴짜구니를 쾌아로 쾌아로 가어 나려왓다。 그리하야 재재 산지를 벗어나 춘상은 죽을힘을 다하야 다름질을 하엿다。

초봄이라하야도 겨울과 다름없는 치운밤이라 무른 길에 행인이 없는것이 춘상이에게는 도리어 다행이엇다。

이리하야 어떻게 어떻게 언뜽주막거리에 이른 그는 거리로 민한 집 대문을 두다려가며 필경에 이른곳이 은순네집이엇다。

동내 사람들은 때아닌 요란히 일어나 쇠人소리에 놀래깨어 은순네집으로 모여들엇다。 그리하야 일변 은순네집 앞마당에 화롯불을 집여놓고 춘상이를 중심으로 뻥둘러서서 도적맞은 전후시말을 들엇다。

「아니 여간 좀 도적이야 한뎃에도 벗자례 의례히 생기지마는 부라당패가 생기엿혼 근래에 없던일인데 이래서야 송구해서 살수가잇나 팔구나 산하에 사는 우리들로는 여간한일이 아닐세」

하는것이 그네들의 여출일구로 하는말이엇고 그중에도 젊은 장정들은 그길로 바로 새재로 올라가자는 의논이 분분한것을 노인네들이 말려서 날이새후에 가서 시체를 수습하기로하고 그밤은 각각 집에서 화로人불을 지펴놓고 나와서 사방에 [illegible]

춘상이는 극도의 피로와 흥분에 몸을 맘대로 움즉이지 못하엿다。

그래서 독한술을 몇시기마신후에 우선 은순네집방에서 임시의 조리를 하게 되엇다。

斯界의定評잇는
ナショナル受信機
特價奉仕大賣出
總代理店 光云商會總本店
京城府黃金町一丁目一八二
電話本局 三〇/五六 一二九一

京城府授恩洞九十二番地
産婦人科
小兒科
內科
進誠堂醫院
女醫 鄭子英
電話光化門一五三三番

도모지
物件의맛과
消化
食前의仁丹
二三粒으로
二倍三倍
仁丹

京城鍾路二丁目
完全修理
時計
普信堂時計舖
新製品宣傳奉仕元價大賣出急告!!

アーロイ適用萬年筆 宣傳中 特別元價 只の 八十錢
14金ペン（完全インキ止式）
マグナ實用萬年筆 宣傳中 特別元價 只の 五十錢
白色ペン（完全インキ止式）
要前金 送料 二本迄 十二錢 五本迄 十六錢
東京市中野區 鈴木合名會社 振替東京九九八六番

淋疾 皮梅 專門
チエ京城醫院

好評新刊紹介
●朝鮮의名勝古蹟 五〇
●英鮮對譯 格言千篇 五〇
●男女交際의秘訣 五〇
●裸體美人圖 一組十枚 五〇
●社會小說 貧의淚 五〇
●自由自在 生男法 五〇
●男女生殖器圖解全書 二五〇
●心理應用 魔術全書 五〇
●小學卒業 立身成功案內 五〇
●避姙法問答 三〇
●苦學生 三〇
●家庭醫學全書 一〇〇
●珠算獨習 秘訣 八〇
●二倍産卵法 八〇
●奇人奇事錄 一一八
●性慾의神秘 一二〇
●男女의秘密 七〇
●世界思想家論文集 九〇
●現代新語釋義 四〇
●東西古今 二五
●罪惡의씨 三〇
出版業 文昌社

우리옷감 대극성광목

優美館
透明人間
뽀ー라
無敵다루산

春繭價格慘落으로
農村不況漸益深刻
比前年三分之一低落、總督府對策도別無
◇養蠶業의前途는將不知何境？

[illegible]

【驪珍】[illegible]

【抱川】[illegible]

【河東】[illegible]

日本內地에서는
夏秋蠶三割制限
乾繭氾濫에備코저
實施機運濃厚化

[illegible]

主要議案可決코
常議員도改選
朝鮮商議總會　第二日

[illegible]

滿、化硫安
販賣方法協議
不遠重役會에서

[illegible]

工事中止中의水組
建設資金을國庫負擔
補償方法을愼重考慮

[illegible]

京城組銀의
商品擔保貸出
五月中은比前減少

[illegible]

米日爲替는
三十弗臺割下

[illegible]

對外爲替市況
（六月二十日）

[illegible]

沼津春蠶도
取引終了

[illegible]

局線中旬荷動

[illegible]

全購聯과
全驪聯이提携
來肥料年度부터는
全購聯과購肥代行

[illegible]

殖產積金成績良好
但一部는飽和狀態

[illegible]

朝鮮火災七分据置

[illegible]

水產試驗所의
鯉養輸送日程
七月五日부터開始

[illegible]

「留」換算率
引上理由를追糺
會商은廿二日부터續會

[illegible]

佛伊通商條約에
日本品輸入도沮止

[illegible]

今日의市況
◆六月廿一日◆

[illegible]

株式
時勢와市況
東新畢竟臺割
東京先崩으로
環境依然不透明

前場氣崩

[illegible]

後場弱合

[illegible]

東新劇門波瀾
六十圓臺割下

[illegible]

日產依然低堅
大新은追騰寡合

[illegible]

財◇海◇餘◇波

[illegible]

實物賣買價前場

[illegible]

朝取主要株取調

[illegible]

朝取短期前場步調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illegible]

朝取短期後場步調

[illegible]

大阪短期前場步調

[illegible]

大阪短期後場步調

[illegible]

期米
天候品貴憂慮로
後場再次爆發
三期一齊活躍

前場伸悩

[illegible]

後場暴騰

[illegible]

仁川人氣伸悩

[illegible]

米豆餘錄

[illegible]

因緣있는値頃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illegible]

正米
各地商況

[illegible]

海外經濟·金融及商品市況

[illegible]

金　石金　高價買入
三澤商會
[illegible]